

2021 YOUNGONE

ESG Milestones Achievement





01

CEO Message

- 1.1 회장 인사말
- 1.2 사장 인사말

02

영원무역홀딩스 소개

03

ESG 전략

- 3.1 ESG 비전과 철학
- 3.2 영역별 전략과 정책

04

ESG 활동 (ESG Activities)

4.1 환경 경영

- 4.1.1 친환경 제품 -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에코 컬렉션, 고-그린 캠페인
- 4.1.2 친환경 공단의 조성(나무와 호수)
- 4.1.3 탄소 배출 저감 - 태양광 패널, LED 조명, 친환경 보일러
- 4.1.4 빗물 저장 및 수처리 설비 운영
- 4.1.5 포장재 및 화학물질 사용 저감(잉크, 본드, 코팅)

4.2 사회 공헌

- 4.2.1 지역사회 공헌 - 해외 문화유산 보존, 글로벌 사회공헌단
- 4.2.2 더불어 사는 사회 - 지역 사회 기부, 노스페이스 에디션, 희망원정대, 장애아동 등반지원
- 4.2.3 스포츠 후원 - 올림픽 및 팀코리아 후원, 노스페이스 애슬리트 팀의 운영
- 4.2.4 인재 양성 - 해외 인턴십, 산학협력 디자인 개발, 의류학회 후원

4.3 정도 경영

- 4.3.1 윤리 경영 - K-SOX/내부 회계관리제도
- 4.3.2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 4.3.3 사업연속성 관리체계(Business Continuity Planning & Management)

MESSAGE FROM THE CHAIRMAN & CEO

1.1 회장 인사말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자유무역과 포용적 인류사회 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영원무역은 반세기 가까이 섬유산업 외길을 걸어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OEM(주문자 상표 부착생산) 방식으로 전 세계를 대표하는 수십 여 브랜드의 의류와 용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중후장대 산업이 아닌 의류 사업만으로 세계 유수의 글로벌 기업이 되었습니다. 진출한 국가만 10여국에 이르며, 이를 통해 세계 곳곳에서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이 시대 전 인류 사회의 과제인 안녕과 경제적 동반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찍이 '지속 성장을 통한 고용증대', '환경 중시 경영을 통한 인류의 삶의 질 향상', '사회 환원을 통해 더불어 사는 인류애에 기여'를 목표로 내걸고 노력해 온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 빛나는 성취를 흔들림 없이 이어나갈 것입니다.

전후, 인류사회가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데에는 자유무역의 힘이 컸습니다. 자유무역의 원칙은 지키면서 그 틀 안에서 경쟁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교역 질서가 형성될 때, 궁극적으로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폐쇄화 경향이 기업은 물론 인류사회 전체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더 포용적이고, 더 지속가능한 사회가 미래의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영원무역은 자유롭고 공정하며, 포용적인 글로벌 기업으로서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식회사 영원무역
대표이사 회장 **성 기 학**

MESSAGE FROM THE PRESIDENT

1.2 사장 인사말

영원무역은 1974년 창업 이래 혁신적인 제품의 개발과 생산에 집중해 왔습니다. 또한, 전환기를 맞을 때마다 과감한 결단과 도약으로 오늘날 아웃도어 스포츠웨어 시장의 글로벌 리더로 우뚝 서기에 이뤘습니다. 1980년 국내의류업계 최초로 대규모 해외투자를 통한 성공을 발판으로, 현재는 방글라데시, 베트남, 중국, 엘살바도르, 우즈베키스탄 및 에티오피아에 걸친 생산법인은 물론, 미국, 스위스, 일본, 싱가포르, 홍콩, 태국 등에 현지 법인과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생산 법인이 위치한 방글라데시에서는 많은 의미 있는 변화를 이뤄냈습니다. 처음으로 의류산업에 투자한 외국계 기업이었으며, 누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투자를 집행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또한, 대규모 여성 근로자들을 채용한 첫 번째 기업이었으며, 한국수출가공공단(KEPZ)이라는 자체적 공단을 구축한 유일한 민간 기업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방글라데시에서 가장 큰 규모의 태양광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탄소저감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영원이 추구하는 가치는 인류 화합과 행복을 추구하는 스포츠의 정신과도 부합하기 때문에 스포츠 분야에도 많은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관계사인 영원아웃도어의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후원을 통해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라는 국가적 과업 달성에 기여했으며, 많은 산악인들과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내 올림픽에서의 성과를 브랜드 파워와 이에 걸맞는 제품 개발로 이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5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의 영원의 성장은 정직과 윤리적 가치, 탁월함과 유연함, 책임감을 겸비하여 사회와 함께 성장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모든 영원의 임직원들은 지금까지 영원의 핵심가치인 "HEART"를 마음에 품고 고객을 맞이해 왔습니다. 이러한 가치는 UN의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인권 및 환경 보호 분야에서 요구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도 부합하는 것이며, 앞으로도 우리를 더 나은 사회로 인도할 수 있는 바람직한 가치라고 굳게 믿습니다.



**아웃도어·스포츠웨어 시장의 글로벌 리더로서
지속 가능한 사회 구축에 기여하고
새로운 공유 가치 창출에 앞장서겠습니다.**



영원은 글로벌 시민사회의 일원이자, 사회적 기업으로서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영원 가족의 노고와 헌신, 그리고 지구촌의 소비자 여러분의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식회사 영원무역홀딩스
대표이사 사장 **성래은**

영원무역홀딩스 소개



영원무역홀딩스는 2009년 7월 1일 사업회사인 영원무역과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로서 존속하게 되었습니다. 영원무역홀딩스는 2021년 6월 말 기준 총 78개의 계열회사(국내법인 3개, 해외법인 75개)를 산하에 두고 있으며, 지주회사로서 사업 자회사들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함으로써 자회사의 제반 사업 내용을 지배, 경영, 관리 및 육성하고,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자회사인 영원무역은 노스페이스, 룰루레몬, 파타고니아 등 약 40여개의 해외 유명 아웃도어 및 스포츠 브랜드바이어로부터 의류, 신발, 백팩 등의 제품을 수주받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엘살바도르, 에티오피아 지역에 위치한 현지법인공장에서 OEM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 및 수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에는 프랑스의 패션 아웃도어 브랜드 Poivre Blanc을, 2014년에는 미국의 테크니컬 아웃도어 브랜드 Outdoor Research를, 2015년에는 스위스 소재 프리미엄 자전거 브랜드인 SCOTT 등을 인수하며, 글로벌시장에서 자전거 및 스포츠 브랜드 유통 및 물류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국내 내수시장에서는 사업 자회사 영원아웃도어를 통하여 노스페이스 등에 대한 브랜드 리테일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주력 브랜드인 노스페이스는 지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스포츠 의류 후원사로서 올림픽의 성공적 완수와 국가 스포츠 발전에 기여하며, 2021년 기준 대한민국100대 브랜드 중 의류/패션 분야 8년 연속 1위는 물론 국가고객만족도(NCSI)조사에서도 아웃도어 부문 7년 연속 1위에 선정되며 브랜드 명성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도에는 스캇노스아시아를 설립하여 국내에서도 SCOTT 자전거 판매 사업을 전개하며 회사의 영업 범위를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원무역홀딩스 산하 관계사들은 글로벌 사업장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아웃도어 의류 및 용품 업체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에 발맞추어 회사의 위상에 적합한 ESG 전략을 수립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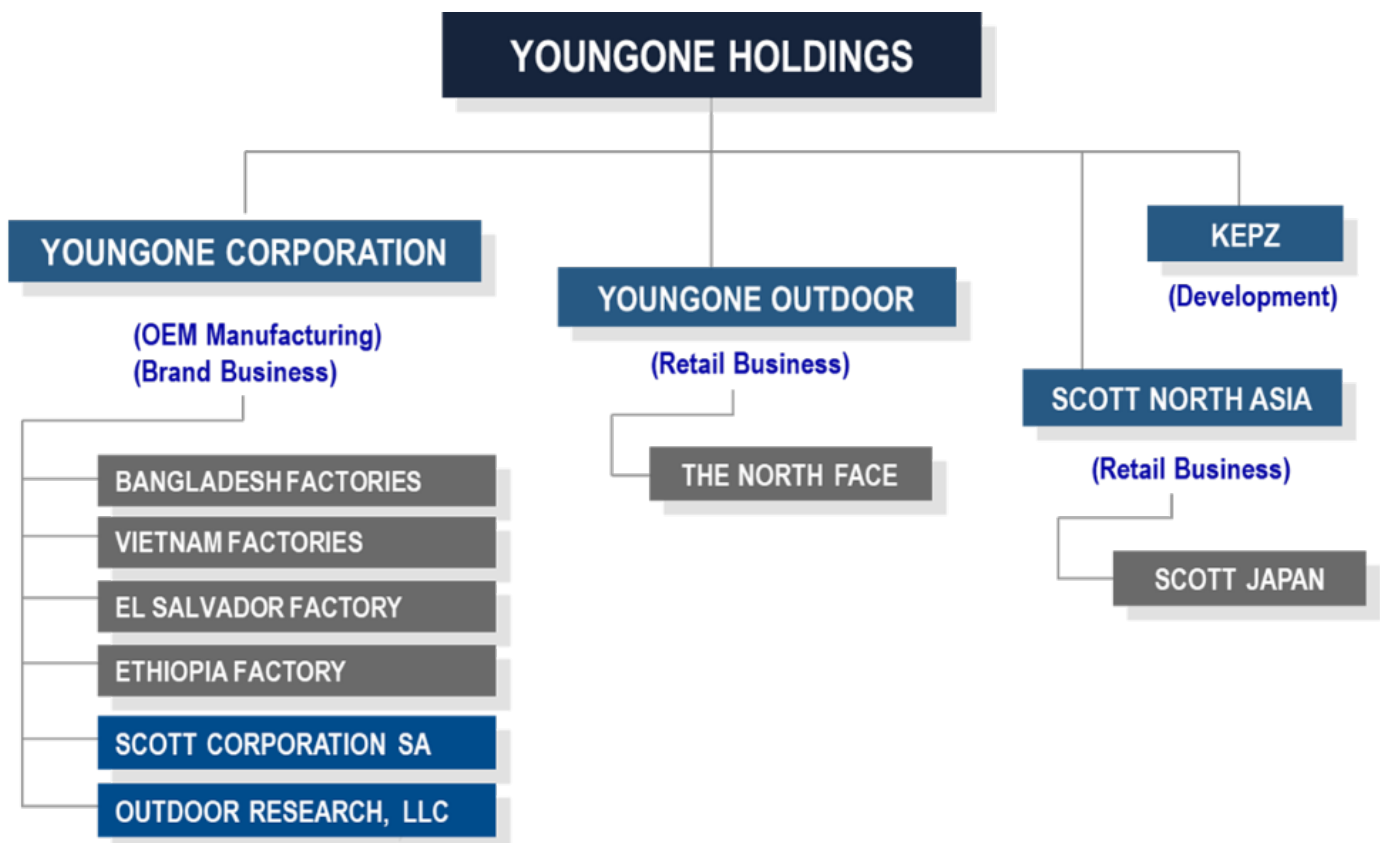


Figure 1. 영원무역홀딩스 산하 주요 계열사 현황

ESG 전략 (ESG Strategy & Philosophy)

3.1 ESG 비전과 철학(ESG Vision & Philosophy)

영원은 당사의 핵심가치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이 ESG 비전과 철학을 수립하였습니다.

“ 우리의 제품과 생산체계를 통해 전세계의 긍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변화를 추구하며, 이는 지속가능한 근무환경의 추구, 친환경 정책을 통한 지속가능성의 추구, 지역사회의 동반성장의 추구를 통해 실천한다. ”

"Driving Positive Sustainable Changes Throughout Our Supply Chain, focusing in working environment,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nd community engagement"

3.2 영역별 전략과 정책(3 Pillars of ESG Strategy & Policy)

Pillar 1: 지속가능한 근무 환경의 추구(Working Environment)

영원은 안전하고 공정하며 포용적인 근무 환경의 조성을 통해, 구성원들의 근무 환경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행동규범(Code of Conduct)을 정의하고 운영합니다.



법률 준수(Legal compliance) - 당사는 고용, 건강, 안전 및 환경과 관련된 모든 법률을 준수합니다.

반 부패 원칙(Anti-corruption) - 당사는 어떤 부패 행위에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아동 노동 금지(Child Labour) - 당사는 18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국가에 따라서 법률적으로 16~18세 사이의 근로자 고용을 허가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는 관련 법률과 판례를 엄격히 준수하는 전제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강제 노동 불허(Forced Labour) - 당사는 비자발적이거나 강제적으로 행해지는 노동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모든 근로자는 초과근무를 거부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학대 방지(Abuse) - 당사의 어떤 근로자도 신체적, 물리적, 성적, 정신적 혹은 언어에 의한 학대에 관여하지 않으며, 관여하도록 허용되지 않습니다.

차별 금지(Discrimination) - 당사는 인종, 국적, 종교, 피부색, 성별, 임신여부, 의학적 상태, 나이, 성적 정체성, 장애, 혼인상태, 계급, 사회경제적 지위, 정치적 성향 혹은 노동조합 가입여부에 따라 근로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결사의 자유(Freedom of association) - 당사는 근로자의 회합과 단체교섭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합니다.

고충 처리(Grievance) - 모든 근로자는 비밀이 보장되는 고충처리 시스템에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급여와 복지(Wages and benefits) - 당사의 근로자는 반드시 해당국가 법률에 의거하여 급여와 관련 혜택을 지급받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자 개인별로 증빙이 가능한 계좌로 정해진 기간에 지급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징계의 사유로 급여 차감을 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 준수(Hours of work) - 법적 허용 시간이 더 낮은 곳을 제외하고는 통상적으로 주당 48시간 및 초과근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최대 연속 6일 근무 후에는 최소 24시간 연속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근로자는 해당 국가 법률에 의거하여 초과근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건과 안전 강화(Health and safety) - 당사는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제공하며, 보건과 안전에 관련된 정책, 시스템 및 교육의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 보호(Environment) - 당사는 에너지와 천연자원의 사용, 배출 및 폐기물 생성으로 인한 환경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2 영역별 전략과 정책(3 Pillars of ESG Strategy & Policy)

Pillar 2: 친환경 정책을 통한 지속가능성의 추구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영원의 친환경 정책은 당사의 사업 운영과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과 강력한 실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에너지와 온실가스 저감(Energy and Greenhouse Gas) - 당사는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호가 인류의 장기적 생존을 위해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당사에서 구매하고 사용하는 에너지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방법론과 기준을 통해 측정하고 보고할 것입니다. 또한, 친환경적인 자재와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장비의 사용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새로운 기술과 재생에너지 사용을 통해 탄소 배출이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화학물질 관리(Chemicals) - 당사는 환경친화적인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인간과 환경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당사는 화학물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이는 법률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산업내의 가장 우수한 관리 체계를 내재한 시스템입니다.

물 관리(Water) - 당사는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오폐수에 대해 면밀하게 추적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발생하는 오폐수의 수준에 따라 적절한 기술과 설비를 사용해서 정화 후 배출함으로써 인간과 환경에 유해한 어떠한 물질도 배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Waste) - 당사는 전 세계에 위치한 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저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업이 운영되는 모든 장소에서는 법률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산업내의 가장 우수한 관리 체계를 내재하여 폐기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사업 운영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리사이클하거나 업사이클할 수 있는 방안을 항상 지지하며, 리사이클된 소재 사용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Pillar 3: 지역사회와 동반성장의 추구(Community Engagement)

영원은 우리를 둘러싼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당사는 지난 수년간 많은 후원, 기부, 목적성이 있는 투자와 개발 프로젝트 수행 등의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우리가 속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ESG 활동 (ESG Activities)

4.1 환경 경영

4.1.1 친환경 제품 -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에코 컬렉션, 고그린 캠페인

(1) 리사이클 소재의 적극적 활용

아웃도어 의류 소재 중, 비중이 높은 폴리에스터 관련하여 당사는 해외 유명 아웃도어 Brand 고객들과 협의하여 리사이클된 폴리에스터로 만들어진 원단의 채택 비중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만들어진 원단을 구매하는 것은 물론, 리사이클된 폴리에스터 기반의 원사를 활용하여 Woven과 Knit 원단을 직접 제조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소재를 사용하면서도 기능성 원단에서 요구되는 물성을 저해시키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체 제조하는 폴리에스터 원단의 경우 Woven은 약 20%, Knit는 50%를 리사이클 기반으로 제조하고 있습니다.

보온재의 경우 기존에도 오리/거위 등에서 추출한 천연 Down 보다는 친환경 폴리에스터로 만들어진 인공다운 및 패딩류의 비중을 늘려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보온재 제조 시 사용하는 폴리에스터 섬유 의 약 15% 정도를 리사이클된 소재를 사용하고 있지만, 향후 이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여갈 예정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가장 큰 생산능력을 보유한 방글라데시 현지공장에서는 직접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칩과 섬유를 생산하는 설비를 도입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해외 선도 화학 회사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폴리에스터 외에 모직(Wool) 원단 scrap을 활용한 보온재 개발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여러 브랜드를 대상으로, 당사의 계열사인 Merino Wool 원단 전문 제조사 DTI(Design Textile International)의 역량을 활용해서 모직 원단 기반의 기능성 의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생산 공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원단 조각들을 모아서 적절한 가공 공정을 통해 부드럽고 보온력이 우수한 보온재 소재로 개발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이러한 리사이클 모직 원단을 9만 야드를 생산해서 기능성 의류를 생산하는데 활용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이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 지구를 건강하게 에코 패브릭으로 완성한 에코 테크 ”

ECO FLEECE
1080만병
플라스틱, 옷이 되다

- 최대 66% 재활용 (PET 병)
- 약 59% 절약 (에너지 자원)
- 약 67% 감소 (온실가스 배출)

Figure 2. 노스페이스 에코플리스

4.1 환경 경영

(2) 에코 컬렉션

당사는 계열사인 (주)영원아웃도어를 통해 최근 몇 년간 혁신적인 기술력과 트렌디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국내 패션업계의 “윤리적 소비” 트렌드를 이끌고 있습니다. 플라스틱병을 재활용해 만든 원단을 사용하고 가공 공정에서도 환경 친화적인 요소를 더하여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대폭 줄이는 친환경적인 생산 방식으로 제품을 제작하는 “에코 컬렉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플라스틱병의 재활용을 위한 노력을 본격화하고 소비자들에게도 플라스틱병 재활용의 중요성을 알리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에코 컬렉션”을 대표하는 제품은 “에코 플리스”가 있습니다. 플리스는 아웃도어리류 중 mid-layer에 해당하는 옷으로 겨울철 실내용 자켓이나 날씨가 많이 춥지 않을 때 외출용 자켓으로 폭넓게 이용되는 옷으로, 옷 표면의 섬유를 털처럼 일으키는 기모작업을 통해 보온성을 높인 옷입니다. 주로 폴리에스터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영원아웃도어에서는 이에 착안하여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기반으로 ‘에코 플리스’라는 제품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에코 플리스”는 출시하자마자 플리스 열풍을 일으켰으며, 페트병 1,080만개를 재활용하여 만든 제품이 첫 시즌에 판매된 후 계속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후 리사이클된 소재의 원단을 후단 가공 공정에서도 보다 친환경적인 요소를 더하여 에너지 자원을 절약하고 온실가스 배출도 줄인 형태로 생산하여 친환경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컬렉션 개념으로 에코 플리스 의류 외에도 다양한 친환경 제품을 선보이면서 플라스틱과 같은 재활용 가능한 소재를 재활용하는 활동의 중요성을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지속가능한 패션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3) 동물복지와 고그린 캠페인

글로벌 노스페이스에서는 친환경 동물복지의 개념을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2014년 세계 최초로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텍스타일 익스체인지와 친환경 인증전문업체인 컨트롤 유니온과 연계하여 ‘윤리적 다운 인증’(RDS, Responsible Down Standard)을 만듦으로써, 동물복지의 긍정적 가치와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전체 패션업계에 제시하며 선도해 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노스페이스 브랜드를 전개하는 영원아웃도어에서도 이러한 정책에 동참하여 국내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Down 제품에 대해 RDS를 적용해 오고 있습니다.



Figure 3. '고그린 R/TEE' 제품

이에 더불어 2020년 봄/여름 시즌에는 '고그린 R/TEE'라는 이름의 제품을 멸종 위기의 육상동물과 생태환경의 위협을 받고 있는 해양동물들을 모티브로 하여, 멸종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특화된 디자인과 소재로 제작하여 출시하였습니다. 또한, 올바른 페트병 분리배출 방법과 친환경 캠페인을 SNS를 통해 전개하여 미세플라스틱과 쓰레기로부터 지구의 생물 중 보존에 기여하고자합니다.

4.1 환경 경영

4.1.2 친환경 공단의 조성 - 나무와 호수



Figure 4. KEPZ 개발 전 모습(1990년)

방글라데시 치타공 지역의 KEPZ(Korean Export Processing Zone: 한국수출가공공단)은 당사가 지난 1999년부터 20년 이상 투자하여 조성한 자체적인 공단으로,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친환경 공단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약 300만평에 이르는 불모지의 땅을 400종이 넘는 나무 250만 그루 이상을 식재하는 대규모 조림사업을 통해 1,150에이커(acres)에 달하는 녹지로 개발하였으며, 여기에 더해 190만톤 이상의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25개 수역을 150에이커(acres)에 걸쳐 조성하였습니다.

조성된 호수와 저수지는 지하 대수층을 풍부하게 하여 당사의 공장에서 사용하는 공업용수를 충당할 수 있게 하였고, 주변의 마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농업과 생활 용수를 풍부하게 하였습니다. 전체 공단의 48%에 해당하는 면적이 이렇게 친환경 녹지로 조성됨에 따라, 많은 식물들과 137 종의 새들이 서식하게 되었습니다.

당사의 이러한 노력은 'Blue & Green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방글라데시에서 빗물 저장과 관련하여 민간부문 단일 이니셔티브로는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친환경 경영에 대한 노력은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세계자유무역지대협약, 딜로이트컨설팅, 세계은행 등 전세계 20여개의 업체 및 국제기구의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Figure 5. KEPZ 개발 후 모습(2021년)

4.1 환경 경영

4.1.3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노력 - 태양광 패널, LED 조명, 친환경 보일러

(1) 태양광 패널

2019년 기준으로 당사의 글로벌 Operation에 의해서 배출되는 탄소는 연간 130,000 tonCO2e에 달하였는데, 이 중 전력 구매에 의해서 발생하는 탄소는 연간 45,000 tonCO2e로 전체 탄소 배출의 35%에 달하였습니다. 특히 당사의 주된 생산시설이 위치하는 방글라데시와 베트남에서는 대부분의 전력이 화력발전에 의해서 생산됩니다. 이 때문에 당사에서는 탄소배출 저감과 전력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태양광 발전의 효율성과 경제성에 대해 검토해 왔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은 2018년에 방글라데시 KEPZ 내 216KW 용량의 소규모 파일럿 프로젝트로 시작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0년까지 방글라데시에서 5MW, 베트남에서 3MW로 총 8MW 규모의 Roof-top 태양광 설비를 설치 완료하여 운영 중입니다. 2021년에는 15MW의 용량이 추가로 방글라데시 KEPZ내에 설치될 예정이며, 글로벌 사업장 내 총 40MW까지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글라데시에서 국영발전소 및 IPP(독립발전사업자)를 제외하면 가장 큰 Roof-top 프로젝트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대형 solar project는 지상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토지 점유 및 산림훼손 등의 이슈가 있으나, 당사의 경우 이미 건설된 공장 건물의 지붕 위에 설치하기 때문에 더욱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40MW 설치 완료 시 방글라데시 KEPZ 사업장에서는 필요한 총 전력 수요량을 상회하는 규모의 태양광 에너지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Figure 6. 내 시공된 태양광 패널

4.1 환경 경영

(2) LED 조명

2017년 기준으로도 이미 방글라데시에서만 연간 70억원 이상의 비용을 전기료로 지불하고 있던 당사는 태양광 발전을 통한 전력의 자체 조달과 더불어 전력 소비를 줄이는 방법을 다양하게 고민해 왔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류 제조 공장에서는 전체 전력 소비의 15~20%가 조명에 의해 소요되며, 조사 결과 당사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에, 생산설비 운영을 위한 전력을 제외하면 조명이 당사의 가장 큰 전력 소비처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당사에서는 2018년부터 LED 조명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왔습니다. 2018년 당시 당사가 방글라데시에서 사용하던 형광등 및 백열등은 모두 14만 여 개였으며, 연간 소요되는 전력량은 26 GWh에 달하였습니다.

LED 조명 교체를 추진한 또 하나의 큰 이유는 공장 근로자들의 건강과 작업 환경이었습니다. 백열등 및 형광등은 장시간 노출 시 많은 열이 발생하며, 제 때 교체하지 않으면 조도(밝기)가 낮아져서 눈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14만 여 개의 조명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일은 많은 비용과 인력이 소요되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LED 조명으로 교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우선적으로 공장 생산현장과 사무실 외 중요 장소에 대해 9만 여개의 조명을 1년간 교체작업 및 추가 설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력 소요량과 비용은 70% 정도 절감할 수 있었으며, LED는 수명 또한 형광등/백열등에 비해 3배 이상 더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역시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신규로 설치되는 조명은 투자비용이 더 소요되더라도 항상 LED 조명으로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Figure 7. 방글라데시 공장 내 설치된 LED 조명

4.1 환경 경영

(3) 친환경 보일러

당사의 주요 거점 공장인 방글라데시와 베트남 공장의 경우는 원단 생산에 대한 수직계열화를 통한 납기 향상과 품질관리를 강화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원단 생산의 경우에는 염색과 표면처리(Dyeing & Finishing) 공정에서 높은 열량을 내는 보일러에 의한 열원 공급이 필요합니다. 열원 공급을 위한 보일러의 연료로 대개 가스(LNG, LPG)와 석탄을 사용합니다. 방글라데시는 상대적으로 천연 가스(LNG)공급이 용이하여 가스를 주로 사용하지만, 베트남의 경우는 가스 공급 인프라가 취약하고 석탄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석탄을 주로 사용해왔습니다.

하지만, 2019년을 기준으로 당사가 운영하는 석탄 보일러에서 소비하는 석탄에 의해 연간 6만 tonCO₂e의 탄소가 배출되고 있었으며, 동일 열량 생성시 석탄은 가스에 비해 온실 가스는 2배 이상, 미세먼지는 6~10배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당사는 기존의 석탄 보일러를 천연 가스 보일러로 교체하거나 바이오매스(Biomass)로 연료를 교체하는 것을 검토해왔습니다.

석탄 보일러의 용량이 큰 베트남 공장에서는 우선적으로 가스 배출량을 모니터링 하기 시작하였으며,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정화 장치를 설치하여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및 분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석탄 보일러의 연료 일부를 바이오매스로 대체하여 석탄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공장에서는 원단 생산 capacity 증가에 의해 보일러 추가 설치가 필요하게 된 상황에서, 단순 증설이 아닌 기존의 석탄 보일러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큰 규모로 설치하여, 기존 석탄 보일러의 가동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1 환경 경영

4.1.4 빗물 저장 및 수처리 설비 운영

방글라데시와 베트남 공장에서는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빗물을 저장하여 공장 건물의 운영 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직 및 염색 공장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정화하는 설비를 운영하여 배출하는 물의 오염도를 낮추거나 이를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빗물 저장의 경우, 치타공수출가공공단(CEPZ) 내 위치한 당사 공장 사례가 대표적으로, 1,100톤 규모의 빗물 저장장치를 구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당사 공장에서도 이보다 규모는 작지만 나름대로의 빗물 저장을 통해 물 절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수도인 다카에 위치한 다카수출가공공단(DEPZ)과 치타공 지역에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한국수출가공공단(KEPZ) 내에 있는 원단 염색 공장의 경우, 염색 후 배출된 물의 정화를 위해 ETP(Effluent Treatment Plant)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설비의 우수한 정화 성능에 대해 World Bank와 같은 국제 기관에서도 인정한 바 있습니다. 특히 KEPZ에서는 제직 및 원단 생산 규모를 늘려가고 있는데, 이에 발맞추어 수처리 설비 용량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ACF(Active Carbon Filter), UF(Ultra Filter) 및 RO(Reverse Osmosis) 기반 설비를 추가하여 정수 성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경우에도 남딘 지역에 위치한 거점 공장에서는 MBR(Membrane Filter)과 RO를 결합한 시스템을 활용해 생활용수와 염색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정화하여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Figure 8. 방글라데시 공장 ETP 수처리 설비



Figure 9. 베트남 공장 RO 수처리 설비

4.1 환경 경영

4.1.5 포장재 및 화학물질 사용 저감(잉크, 본드, 코팅)

(1) 포장재 절감 및 생분해성 소재 사용

의류 및 신발 등의 제품 포장 시에는 PET라는 이름의 플라스틱 포장재와 종이로 만든 box가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플라스틱과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당사는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PET 포장재에 대해서는 크게 3가지 방향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첫째, 필요한 강도를 유지하면서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개발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둘째, PET 자체를 Recycled PET chip을 사용하여 포장재를 제작함으로써 GRS 친환경 인증을 받은 polybag으로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재료 자체를 생분해성 재료(Bio-degradable PE/PLA)로 변경하여 만든 Bio-degradable polybag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스페이스를 비롯한 당사의 주력 buyer들은 당사의 이러한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친환경 제품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종이 Box 포장재의 경우에 신발 포장 시 사용되는 Inner box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Buyer와 협의하여 일부 수량만 별도로 제작한 후 요구하는 고객에게만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 C6/PFC Free 소재의 적극적인 채택

아웃도어의 경우, 제품의 특성상 방수/발수 코팅과 같은 표면처리가 요구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방수/발수 코팅의 재료로 C6 혹은 PFC/불소 수지 계열의 화학물질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화학물질은 제조공정에서 유해한 부산물을 배출하게 되고, 누출 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당사에서는 유사한 성능을 가지면서 C6 혹은 PFC를 대체할 수 있는 C0 기반 재료의 개발과 채택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2020년에는 당사에서 자체 생산하는 원단의 경우 C0 기반 코팅의 비중을 80%까지 높였습니다.

(3) 수계(Water base) 시스템 기반 프린팅 공정으로 변경

아웃도어 의류의 경우, 브랜드 로고를 표시하거나 안전상의 이유 혹은 디자인적인 이유로 문자나 도안을 의류 표면에 성형하는 스크린 프린팅(Screen Printing) 공정이 다수 있습니다. 이 공정 역시 프린팅 잉크 및 전/후처리용 화학 물질을 다수 사용하게 됩니다.

아웃도어 의류는 대개의 경우 표면에 방수/발수 코팅이 되어 있고, 이러한 물질의 표면은 소수성(Hydrophobic)한 특성을 지녀서 우수한 부착성(Adhesion)을 위해 휘발성 유기용매(VOC)를 기반으로 한 잉크를 사용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잉크는 프린팅 공정 중 건조 과정에서 휘발성 유기용매를 증발시켜야 하고, 이렇게 휘발된 증기를 작업자가 흡입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수계 용매(Water Solvent)를 기반으로 한 잉크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업체들이 휘발성 유기용매를 기반으로 한 잉크를 주로 사용하고 수계 용매 기반 잉크 사용에 소극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수계 용매 기반 잉크는 휘발성 유기용매에 비해 가격이 비싸고, 느린 건조시간으로 인해 생산성과 품질 유지를 위해서는 특별히 디자인된 자동화 설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당사는 연간 1천만 장의 패넬(프린트가 적용되는 조각)에 대해 프린팅 공정을 수행 했었으나, 이중 63%가 유기용매를 비롯한 비 수계 잉크 공정이었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수계 용매 기반 프린팅 공정을 도입하기 위한 대대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선, 여러 브랜드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는 수계 잉크 시스템을 찾기 위해 다양한 테스트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수계 잉크 시스템의 약점인 생산성 저하를 보완할 수 있는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기 위해 수 백만 달러의 투자를 집행하였으며, 후속 보완 투자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규모가 큰 공장의 경우는 프린팅 전용 건물을 지정하고 설비를 통합하여 생산성 제고를 극대화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프린팅 공정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작업 환경 안전성 확보는 물론, 품질 향상, 생산성 제고, 고객 만족 제고 등의 부수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었습니다.

4.1 환경 경영

(4) VOC(Volatile Organic Material) 기반 접착제 사용의 저감

신발 생산 공정에서는 cement, hot-melt, adhesive, primer 등의 다양한 이름을 가진 접착제들이 사용되며, 당사에서 사용하는 접착제는 연간 1천톤 규모로 적지 않은 양입니다.

프린팅 잉크와 마찬가지로 신발 생산 공정에서 접착해야 하는 부분들이 고무, 가죽, 합성피혁 혹은 중합된 폴리머류이기 때문에 표면이 소수성인 경우가 많고, 빠른 건조 속도로 인한 생산성 관리의 용이성 때문에 대부분의 접착제들이 VOC로 불리는 유기용매를 기반으로 한 접착제였습니다.

당사에서는 지난 수년간 유기용매 기반의 접착제를 수계(Water base) 접착제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접착제 공급사들과 꾸준히 진행해왔습니다. 처음에는 기술적인 난이도로 인한 어려움도 있었고, 소량 batch 생산으로 인한 접착제 공급사들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보다 친환경적인 신발 생산 공정 개발을 위한 노력에 동참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20년 기준으로 전체 사용량의 52%를 수계 접착제로 전환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서 수계 접착제의 비중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4.2 사회 공헌

4.2.1 지역사회 공헌 - 해외 문화유산 보존, 글로벌 사회공헌단

(1) 방글라데시 문화유산 보존

영원무역에서는 해외 사업장을 설립한 국가와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공헌의 일환으로, 다양한 문화 예술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생산법인이 위치한 방글라데시에서는 문화유산 보존 사업에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방글라데시의 가장 중요한 문화 유적은 고대 벵갈(Bengal) 제국과 관련된 유적입니다. 방글라데시의 수도 다카(Dhaka)의 남동쪽으로 32km 거리에 위치한 도시 소나가온(Sonargaon)은 고대 벵갈 제국의 수도로 3백여년간 인근 지역에서 가장 큰 이슬람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지역에는 바로사다바리(Baro Sardar Bari)라는 16세기에 지어진 당시 큰 부호의 저택이 있었습니다. 이 저택은 274,000 평방피트 대지에 85개의 방이 있는 건물로, 16세기에서 19세기까지 해당 가문이 거주하면서 지속적으로 개축을 하여 300년 간의 건축양식이 녹아 있어서, 방글라데시 건축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많은 풍파를 겪으면서 저택은 부서지고, 장식물과 조각들은 도난 당해 폐허가 된 상태였습니다. 방글라데시는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였지만, 문화 유적 복원과 같은 곳까지 정부 예산을 투입할 만한 재정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2015년에 영원무역과 인연이 있었던 당시 문화부 장관은 도움을 요청하였고, 영원무역에서는 기꺼이 적극적인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영원무역의 창업자인 성기학 회장께서는 지난 35년간 방글라데시에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방글라데시의 많은 유적지를 돌아보았었고, 대다수가 이와 같이 폐허가 된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제안에 기꺼이 승낙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대적인 문화 유적의 복원은 방글라데시가 1971년에 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처음이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하기 보다는 문화 유적 복원의 체계를 잡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우선 방글라데시의 유명 건축가이고 건축 복원의 경험이 있었던 Abu Sayeed 교수와 연구팀을 조직하였습니다. 건물을 구성하는 모든 건축 요소에 대한 그림과 도면을 제작하고, 사용된 소재와 성형 방법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또한, 전국의 유명한 기능공과 목수, 벽돌공 등을 찾아다니며, 전통적인 건축 공법과 재료 성형 방법을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에 부착된 각종 장식과 디자인들의 의미를 추적하고 시대적인 배경과 건축사적인 의미를 찾았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영원무역과 Abu Sayeed 교수팀은 바로사다바리를 예전 그대로의 모습을 보전하면서도 현대적인 형태로 새롭게 해석되어 복원되었습니다.

3년에 걸친 노력 끝에 2018년 새롭게 복원된 바로사다바리는 수도 다카 인근 지역에서 관광명소가 되었으며, 방글라데시 사람들의 자랑스러운 문화 유적이 되었습니다. 또한, 방글라데시 건축학계와 고고학계에서 문화 유적 복원에 대한 중요한 업적이 되었으며, 관련된 분야의 많은 인재를 길러내고 자료를 만들어 낸 계기가 되었습니다. 방글라데시 문화부 장관을 비롯한 많은 정부 요인들은 영원무역의 문화유적 보전과 복원에 대한 헌신적인 노력에 대한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영원무역은 앞으로도 사업을 영위하는 곳의 국민들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사회 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갈 것입니다.



Figure 10. 바로사다바리 복원 전 모습



Figure 11. 바로사다바리 복원 후 모습

4.2 사회 공헌

(2) 대학생들과 함께 하는 글로벌 사회공헌단

당사 계열사인 영원무역은 서울대학교와 함께 2011년 이래 총 15차례 이상 지식 나눔과 사회 공헌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SNU 봉사단은 의료지원, 교육봉사, 문화교류 및 환경개선 활동을 진행하였고 방글라데시, 베트남, 우즈베키스탄의 다양한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현지의 문화, 의료 소외지역에 서비스 제공 확대의 기회를 주었으며, 의료지원과 교육 봉사뿐만 아니라 문화교류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였습니다. 또한, 서울대학교 학생들에게 국제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세계시민의식 및 선한 인재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구촌 공동체 경험과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유수의 대학교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의류학과 박사과정 연구원들에게는 개발도상국의 의류학과 학생들에게 지식 나눔을 통한 사회공헌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사의 사업장이 위치한 우즈베키스탄에도 열의와 능력을 가진 우수한 패션/의류 전공 학생들이 많지만, 그에 비해 선진화된 디자인과 복식에 대한 지식을 접할 기회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이에 착안하여 국내에서 선도적인 의류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연구원들과 함께 우즈베키스탄의 AND PROFESSIONAL COLLEGE 재학생/졸업자들을 대상으로 7주간 FASHION ILLUSTRATION, FASHION DESIGN PRACTICE에 대해 교육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사회공헌의 의미도 있었지만, 대학원생들에게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오랜 전통과 화를 보유한 개발도상국의 의류/패션 산업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Figure 12. 글로벌 사회봉사단 활동 및 우즈베키스탄 패션 아카데미 교육

4.2 사회 공헌

4.2.2 더불어 사는 사회 - 지역 사회 기부, 노스페이스 에디션, 희망원정대, 장애아동 등반지원

(1) 지역 사회에 대한 지속적 기부

당사는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꾸준한 기부 활동과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 왔습니다.

당사에서 World Vision, 국제적십자사 등의 국제 기구를 통해 기부한 의류의 경우 지금까지 누적으로 5백만 점이 넘으며, 지난 25년간 630 여 곳에 집계된 것만 600억원에 가까운 금액과 다양한 물품을 다양한 상황에서 해왔습니다.

해외법인에서도 자체적으로 많은 기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법인에서는 큰 자연재해 발생 시 적극적인 이재민 구호를 위한 기부와 복구 지원활동을 하였습니다.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와 인권 향상을 위해 여성들의 교육과 사회진출에 대한 지원을 해 왔으며,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서도 많은 지원을 해왔습니다.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인해 생산법인의 현지 직원을 위한 의료 시설 운영을 비롯하여, 지역 사회의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법인에서도 가난한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기반을 마련해주거나, 공과 대학에 대한 장학금 지원 등의 기부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Figure 13. 월드비전 및 적십자 통한 의류 및 금전 지원



Figure 14. 베트남 학교 대상 물품 및 의복 지원



Figure 15. 방글라데시 생산법인 내 의료시설 운영 및 현지주민 의료 지원



4.2 사회 공헌

(2) 노스페이스 에디션: 기부를 위한 사업

당사는 장기적인 기부의 토대를 마련하고 기업 경영 성과를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공헌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계열사인 영원아웃도어를 통해 '노스페이스 에디션'이라는 이름의 전용 매장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전국에 40여개의 에디션 전용 매장을 운영 중입니다. '노스페이스 에디션'은 영원아웃도어에서 판매하는 전 브랜드를 활용하여 다양한 제품을 착한 가격에 판매하고, 수익금의 일부를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NGO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특히, 환경 이슈로 인해 물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의 식수개선을 위한 프로젝트에 집중하여 5년째 지속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당사 계열사인 영원무역의 사업기반이 있는 방글라데시의 락삼과, NGO를 통해 인연을 맺은 탄자니아의 테이크 등의 지역에서 식수개선 사업에 수익금 일부를 지원하여 약 45,000명의 현지 주민들에게 135만 리터의 깨끗한 식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깨끗한 물이 부족해서 각종 질병에 주민들이 노출되어 있으며, 깨끗한 물을 구하기 위해 평균 6km가 되는 거리를 여성들과 아이들이 매일 왕복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주는 식수개선 프로젝트는 오염된 식수로 인한 치명적인 질병을 줄이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여성들과 아이들의 시간과 노동을 감소시켜, 삶의 질을 높이고 더 생산적인 일을 하고 교육을 받는데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노스페이스 에디션**'은 지난 5년간 소비자들의 착한소비 활동에 힘입어 노스페이스는 물론 국내 패션 업계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이자 모범적인 마케팅 사례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기적인 오프라인 행사를 통하여 월드비전의 후원자 모집 활동도 병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2천명의 고객들이 '노스페이스 에디션'을 통해 직접 후원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Figure 16. 방글라데시와 탄자니아에서 진행된 식수개선 프로젝트

4.2 사회 공헌

(3) 노스페이스 희망원정대

'노스페이스 대한민국 희망원정대'는 노스페이스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가 후원하는 대학생 국토대장정 프로그램입니다. 청년들이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인성과 팀워크를 키우며 한층 성장해 나가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원정대가 걷는 1km당 1만원의 기부금이 적립되며, 조성된 기부금은 노스페이스가 매칭그랜트 형식으로 심장병 환우들의 수술비로 기부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옛길과 자연 유산이 자리잡은 지역을 걸으며, 특정 구간에서는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걷는 플로깅(Plogging) 활동도 병행합니다.

현재까지 총 누적 완주자 1,565명이 참여하여 총 8,477km를 완주 하였습니다. 16회째 진행되고 있는 희망원정대는 국토 도보 순례를 통해 '멈추지 않는 도전 정신'을 청년들 스스로 확인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 길 위에 젊음을 채워라 ”



Figure 17. 노스페이스 희망원정대

(4) 장애아동 등반지원

당사 계열사인 (주)영원아웃도어는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장애 아동을 돕기 위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장애 아동들과 함께하는 등반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약 1만 5천여 명이 참가했고, 참가비 총 3억 7천만원을 소외계층돕기 성금으로 기부하였습니다.

“ 산에 올려 퍼진 희망의 메시지 ”



Figure 18. 노스페이스 희망찾기 등반대회

4.2 사회 공헌

4.2.3 스포츠 후원 - 올림픽 및 팀코리아 후원, 노스페이스 애슬리트 팀 운영

(1)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대회 후원 및 팀코리아 후원 (2014-2020)

당사 계열사인 영원아웃도어는 국내 아웃도어 업계 최초로 올림픽 후원을 결정하여,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의 스포츠웨어 부문 공식 후원사로서 자원봉사자 4만 5천여 명에게 대회운영인력 유니폼을 제공했습니다.

“ 스포츠 발전과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성공 개최에 기여 ”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기간에는 “노스페이스 빌리지”를 운영하였는데, 대회기간 동안 선수, 관람객, 대회 관계자를 포함하여 22만 명 이상이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 개최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2019년 9월에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유공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인 팀코리아를 후원하여 (2014-2020) 인천 하계 아시안게임과 2016 리우 하계올림픽 대회를 거쳐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와 2018 자카르타 팔렘방 하계아시안게임 등에 이르기까지 대형 국제 스포츠 이벤트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에게 개 · 폐회식복, 훈련복 및 시상복 등으로 구성된 공식 단복을 제공하였으며, 2024년 말까지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단에 스포츠 의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Figure 19. 평창동계올림픽 후원 협약식



Figure 20. 국가대표선수단 공식파트너 협약 지속



Figure 21. 노스페이스의 평창 동계올림픽 국가대표 및 진행요원 단복

4.2 사회 공헌

(2) 노스페이스 애슬리트 팀

당사 계열사인 영원아웃도어를 통해 새로운 산악 문화 보급 및 발전을 위하여 국내 아웃도어 회사 중 최초로 지난 2005년 4월 24일에 노스페이스 클라이밍 팀을 창단하였습니다.

“**우수한 선수들과 산악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후원**”

이후 다양한 아웃도어·스포츠 종목(스포츠클라이밍, 트레일러닝, 스키 등)의 선수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육성해왔고, 2019년부터 '노스페이스 애슬리트팀'으로 팀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스클라이밍 세계랭킹 1위 박희용 선수, 2위 신운선 선수, 스포츠클라이밍 2018 아시안게임 금메달 천종원 선수, 스포츠클라이밍 2019 세계랭킹 1위 서채현 선수, 국내 트레일러닝 1인자 김지섭 선수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후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석문, 이명희, 김영미 등 유명 산악인들의 해외 원정 등반을 1997년부터 100회 이상 후원하는 등 다양한 산악 활동 지원을 통해 국내 아웃도어 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이스클라이밍의 거목 신운선, 박희용"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의 남녀 아이스클라이밍 대표주자! 10년 넘게 노스페이스와 함께 국가대표 자리를 지켜온 신운선, 박희용 선수가 2019년 아이스클라이밍 세계 통합 랭킹 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박희용 선수는 현 스포츠클라이밍 국가대표팀 코치로, 2019년 UIAA아이스클라이밍월드컵 세계랭킹 2위, 2017년 UIAA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세계랭킹 1위를 비롯하여 2011에는 대한민국 산악대상, 한국산악상 수상한 바 있습니다. 신운선 선수 역시 2019년 UIAA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세계랭킹 2위를 비롯하여, 2018년 UIAA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세계랭킹 2위 및 2017년 삼파니 아이스클라이밍 세계선수권대회 1위 등 다양한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낸 선수입니다.



Figure 22. 신운선 선수(좌)와 박희용 선수(우)

"트레일러닝의 지존 김지섭"

국내 트레일러닝 1인자인 김지섭 선수는 2018년부터 노스페이스와 함께 해왔습니다. 2019년 TNF100 HONGKONG 50KM 1위를 비롯하여, 국내에서 진행된 2019 TNF100 KOREA 50KM와 100KM 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각종 TNF100 시리즈와 출전하는 대부분의 국내외 대회에서 1위를 수상하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Figure 23. 김지섭 선수

4.2 사회 공헌

"노스페이스 애슬리트팀의 스포츠 클라이밍 스타들"

스포츠 클라이밍의 새로운 여제인 사솔 선수는 실력과 미모를 겸비한 선수로, 2018년 아시안게임에서 컴바인 (리드/볼더링/스피드) 부문 2위를 차지하며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혜성처럼 나타난 서채현 선수는 2019년 IFSC 월드컵 리드 세계랭킹 1위로 국내 최연소 스포츠클라이밍 국가대표입니다. 국가대표 자격을 취득하자마자 세계 무대를 휩쓸며 데뷔 무대에서 세계랭킹 1위를 기록한 선수로, 앞으로의 행보가 더 기대됩니다. 2020 도쿄올림픽에서도 국가대표로 출전하여 활약할 예정입니다.

천종원 선수 역시 서채현 선수와 더불어 스포츠클라이밍 국가대표팀의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2018년 아시안게임 스포츠클라이밍 컴바인에서 금메달을 수상하였고, 2017년 IFSC 월드컵 볼더링 세계랭킹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천종원 선수 역시 2020 도쿄올림픽에서 서채현 선수와 같이 국가대표로 출전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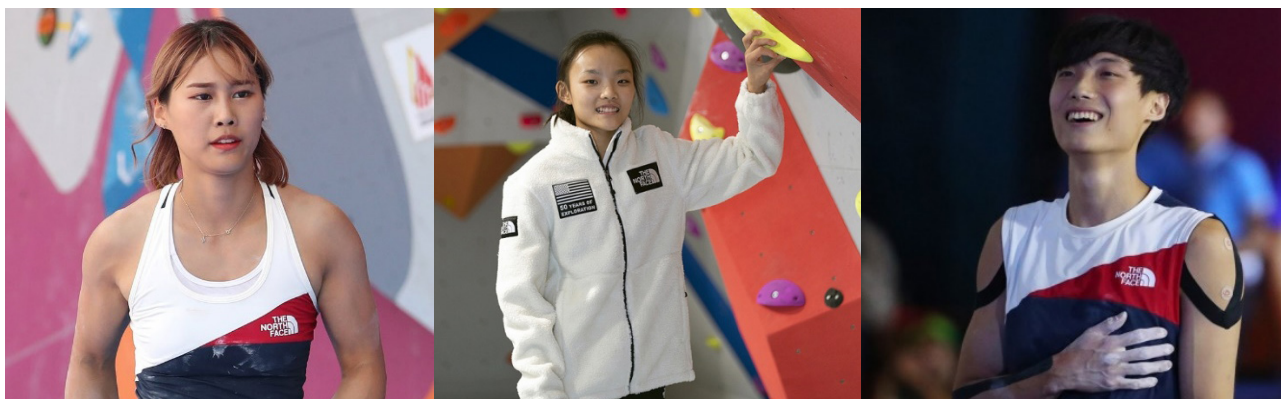


Figure 24. 사솔 선수(좌), 서채현 선수(중), 천종원 선수(우)

"멈추지 않는 탐험 Never Stop Exploring"

노스페이스 애슬리트팀의 전문 산악인들은 그간 아시아 최초 에베레스트 무산소 등정, 히말라야 8,000m 14좌와 7대륙 최고봉 등정, 남극점 최단기간 무보급 도달과 북극점 원정에 성공해 세계 최초 산악 그랜드슬램의 위업을 달성하고, 2009년 에베레스트 남서벽에 제1호 코리안신루트를 개척하였습니다. 또한, 히말라야 8,000m 14좌를 아시아인 최초로 무산소로 등정, 2008년에는 세계 최고 미답봉 중 최고봉인 파키스탄 바투라2를 최초 등정하였고, '강가푸르나(7,455M) 남벽에 고난도 루트 '코리안웨이'를 개척하였습니다.

산악인 최석문은 UIAA 아이스클라이밍 국제루트세터이며, 2017년 프랑스 황금피켈상 특별상을 수상하였고, 2016년에도 황금피켈 아시아상을 수상한 전문 산악인입니다. 또한, 2008에서 2016까지 7,000m급 3개 봉우리를 세계 최초 등정하였고 신루트 개척하기도 하였습니다. 산악인 이명희의 경우, 2017년 아르헨티나 세로토레 3,102m 등반 기록을 세웠으며, 2012년에는 아시아 여성팀 최초로 아르헨티나 피츠로이 3,405m 등정에 성공하였으며, 2010년에는 미국 요세미티국립공원 엘캡노즈를 하루 16시간 40분만에 등반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산악인 김영미는 2020년 체육훈장 거상장을 수상하였으며, 2017년에는 시베리아 바이칼호 724km를 단독 횡단하였고, 2013년에는 네팔 히말라야암푸1봉 6,840m를 세계 최초 등정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에는 세계 7대륙 최고봉 한국 최연소 등정한 기록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Figure 25. 산악인 최석문(좌), 이명희(중), 김영미(우)



4.2 사회 공헌

(3) 스포츠클라이밍 저변 확대

당사는 국내 아웃도어·스포츠 브랜드 최초로 2003년에 스포츠 클라이밍 대회를 개최했고, 현재까지 총 26회에 걸쳐 노스페이스컵 스포츠 클라이밍 대회를 진행하여 국내 스포츠 클라이밍 저변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HOLD YOUR PASSION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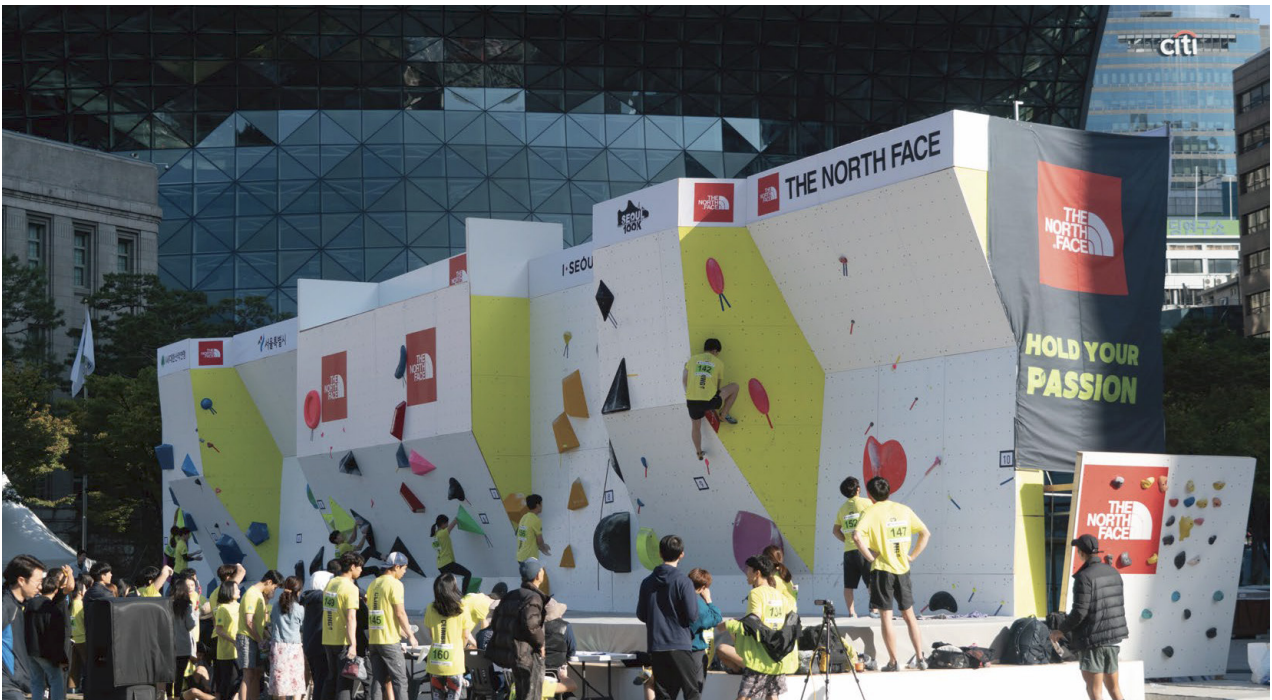


Figure 26. 노스페이스컵 스포츠 클라이밍 대회

4.2 사회 공헌

4.2.3 인재 양성 - 해외 인턴십, 산학협력 디자인 개발, 의류학회 후원

(1) 해외 인턴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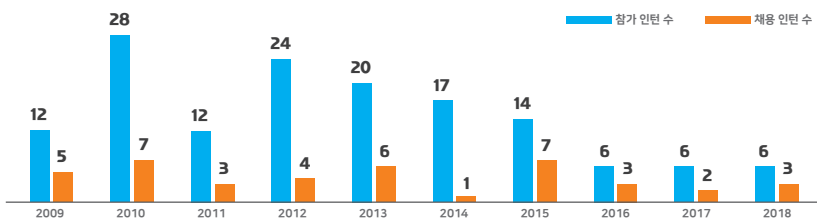
"실무 중심의 산학협력 및 해외 인턴십 운영"

영원무역은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9년 7월 영원무역 해외 인턴십 1기를 시작으로 매년 1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으며, 선발된 인턴들은 영원무역의 해외 현지법인에 일정 기간 근무하면서 의류생산 전반에 대한 실무를 익히고, 수료 후에는 채용의 기회를 제공 받습니다. 일부 학교와는 인턴십과 장학금 지급이 연계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교와 학생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무 경험 제공을 중심으로 한 전문적인 인턴십 과정을 운영하여 미래의 인재양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영원무역 인턴십 운영현황



참가 인턴 수
145명

채용 인원
41명

채용 비율
28%

"유능한 인재 발굴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영원무역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13년간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디자인 개발 실무를 중심으로 한 협력의 형태로 진행됨으로써,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고 혁신적인 아웃도어 제품 개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유명 대학의 의류학과 교수, 강사, 그리고 재학생이 참여하여 OEM 사업 고객의 브랜드에 대한 트렌드 분석과 디자인 개발 업무를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인턴십과 마찬가지로 실무에 대한 경험과 당사 입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원무역은 앞으로도 제품개발과 연구를 중심으로 한 전문적인 프로젝트 운영을 통해 산학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 및 유지하고자 합니다.



(3) 의류학회 후원

의류학회의 "영원신진학자학술상"

영원신진학자학술상은 영원무역이 국내 패션산업 발전을 위해 한국의류학회와 함께 지난 2011년에 제정한 학술상입니다. 만 42세 이하의 한국의류학회 회원으로서 최근 3년간 한국의류학회지에 3편 이상의 학술논문을 게재한 학자 중 논문의 수준이 우수한 학자를 대상으로 시상하고 있습니다

4.3 정도 경영

4.3.1 윤리 경영: K-SOX/내부회계관리제도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18년 개정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8조 개정으로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함에 대한 신뢰성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 및 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의 일부입니다. 2013년에 도입되었던 검토 수준의 기존 내부회계관리제도보다 한 층 높은 감사 수준의 제도로, 회사 내부에서 외부 감사인이 감사를 하는 수준으로 내부통제를 수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당사는 2020년부터 의무적용 대상이나, 2019년부터 선제적으로 도입함으로써, 17개의 원칙 및 관련 중점고려사항이 명시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따라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와 관련된 규정 및 업무프로세스를 사전에 개선하였고, 2020년부터는 별도 전담팀을 구성하여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수준을 평가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어 2021년도에는 내부회계관리시스템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매년 각 부서의 변화사항을 취합하고 이에 대한 위험평가를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반영하는 변화관리 프로세스를 확립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회사 내부에 프로세스로 체계를 잡아 지속적인 수행이 가능하도록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부터는 개별 회사 단위를 넘어서는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의무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속회사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영원무역은 영원무역홀딩스와 동일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이미 구축하였으며, 당해 영원아웃도어의 도입을 시작으로, 이외 종속회사는 매출액 수준에 따라 회사의 주요 전사수준통제, 연결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업무 수준 통제를 적용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지속적으로 확산하여 윤리경영의 모범이 되는 기업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4.3.2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지속가능성이 글로벌 의류 및 신발 산업에 적용되는 방식은 2010년부터 지난 10년 동안 급속한 발전을 해왔습니다. 특히 그린피스는 2011년에 Detox 캠페인을 시작했고, UN의 SDGs는 전 세계적으로 산업 전반에 걸쳐 채택되었으며 각국 정부들은 2016년 파리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손을 잡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산업적인 목표와 더불어, 표준화된 품질의 개발, 추적성 및 투명성, 그리고 더 큰 협업을 위한 노력을 공급망의 모든 부분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변화와 움직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조치는 인권, 작업장 안전, 제품 안전 및 환경 영향과 같은 지속가능성 내의 다양한 주제에 유사한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영원은 글로벌사업장 내 고위 경영진으로 구성된 두 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는 비즈니스의 사회적 측면에서 인권과 근무 환경의 안전을 감독하고, 환경자문위원회(Environmental Sustainability Council)는 운영 전반에 걸쳐 환경영향과 제품생산 과정에서의 안전사항을 감독합니다. 이 두 위원회는 평가, 모니터링, 개선 및 개선활동 진행에 대해 운영 단위 별 전담 팀을 두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3월 이사회 결의로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재무구조, 신용등급 등 재무적 리스크 관리뿐만 아니라, ESG 등 비재무적 요소까지도 전략적으로 관리하여 회사의 지속가능 경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영원은 아래와 같이 지금까지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명망있는 여러 조직과 함께 작업해왔으며, 앞으로도 이 여정에서 지속적으로 진전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4.3 정도 경영

- 방글라데시의 작업장 및 근로자 안전을 관리하는 단체인 Alliance(현 Nirapon)와 비영리단체인 Accord (현 RMG Sustainability Council)의 확고한 기준을 통해 공장 근로자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 공장 직원들의 인권과 복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관리하는 Better Work와 Fair Trade에 가입하여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 SAC (Sustainable Apparel Coalition)는 지속가능한 패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비영리단체로서 생산에 대한 환경 적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Higg Index Tool을 통해 점수를 받아 환경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유해 화학물질 배출을 통제하는 ZDHC (Zero Discharge of Hazardous Chemicals) Bluesign 및 REACH의 기준에 따라 자재 및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 지속가능성 관련 전반적인 의제를 다루는 유엔 글로벌 콤팩트 (UNGC)에서 인권 및 노동, 환경, 반부패에 관련된 요구 기준에 맞춰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투명한 기업 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올바른 환경의 사육농장에서 자란 오리 및 거위 그리고 양들의 깃털을 추적하여 제품에 정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인증해주는 Responsible Down Standard와 Responsible Wool Standard 인증서와 환경을 위해 재활용 자재를 사용하여 제품을 만들었는지 추적하는 Global Recycle Standard 및 Recycled Content Standard를 인증서를 획득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 분쟁지역인 콩고 공화국 및 주변 7개국에서 생산된 주석, 금, 텅스텐 등의 금속 소재를 사용하지 않는 Conflict Mineral 규약을 확인하고 준수하고 있습니다



Figure 27. 영원의 생산체계에서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지속가능성 관련 인증 및 규약

4.3 정도 경영

4.3.3 사업연속성 관리체계(Business Continuity Planning & Management)

전 세계 다양한 지역에서 생산/판매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영원무역은 다양한 내/외부적 risk로부터 회사가 보호받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7년에 의류 제조 분야 세계 최초로 '사업연속성 관리체계(BCP: Business Continuity Planning & Management)'을 구축하고, 이에 대한 국제표준인증인 'ISO 22301'을 획득하였습니다.

'ISO 22301' 인증은 기업이 재해·재난 등 예기치 못한 위기 발생으로 인해 업무 중단에 처하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핵심업무를 복구해 기업의 사업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에 대해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서 정의한 규격입니다.

최근 COVID-19 팬데믹 등 세계적으로 기업의 사업 중단을 초래할 수 있는 재해, 재난의 발생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그 피해 규모와 유형도 점차 복잡화되는 추세입니다. 또한, 미중 무역갈등과 한반도의 지리학적 특수성과 같은 Geo-political 리스크도 기업의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위기와 위험 상황은 개별 기업활동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게 됨에 따라 의류제조산업의 가치사슬 관점에서도 공급망의 연속성과 안전성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2017년에 '사업연속성 관리시스템' 인증을 위한 테스트포스팀(TFT)을 구성하고 글로벌 인증기관의 심사를 거쳐서, 한국 본사 및 주요 해외사업장 법인에서 의류 제조의 여러 주요 분야(Woven, Knits, Textiles 등) operation에 대한 BCP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해·재난 발생 시 사전에 준비된 전략과 계획에 따라 핵심 업무를 정해진 목표시간 내에 복구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재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7년 구축 이후에는 매년 모의훈련과 현행화 작업을 통해 BCP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자연재해 상황을, 2020년에는 Pandemic 상황을 기반으로 하여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BCP 체계를 점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어떠한 비상상황에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업무 복원력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Figure 28. 사업연속성 관리 국제표준 인증서 수여식

